

# 평화는 항상 일어나는 비폭력으로서의 혁명

평화사상이나 이론 소개하는 책들



우리 역사에서 평화는 종교적 주제쯤으로 여겨져 왔다. 먹고살기 바쁘다보니 자유나 평등보다는 덜 시급히 생각한 것이다. 서구에서도 현대적 의미의 평화사상이 개진된 것은 1970년대 이후 평화학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요한 갈통의 저술작업을 통해서였다.

## 모든 간접적 폭력까지 소멸돼야 진짜 평화

갈통 교수는 작금의 독보적인 평화학자다. 지난해 번역된 그의 저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강종일 외, 들녘)는 평화연구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평화를 저해하는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모독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평화이론, 갈등이론, 개발이론, 문명이론이라는 네가지 주요 분야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평화는 혁명적 사상이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는 비폭력으로서의 혁명을 의미한다. 그 혁명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른바 ‘과정의 평화학’을 제창한다. 그리고 적극적 평화론을 편다. 보통 평화라 하면 전쟁을 통한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지은이는 그것이 소극적 의미의 평화일 뿐이며, 적극적 평화는 간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종과 성, 세대와 인종, 계급 등 각종 차별 이데올로기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인간·사회·세계 공간을 무시한 기존의 발전이론도 여지없이 호출된다. 폭력을 옹호하는 각종 예술 또한 혐의의 대상이다.

물론 이 책이 평화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 그것이 인류의 다른 가치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종종 제기되지만, 평화를 단순한 ‘전쟁 부재’로 보지 않고 경제적, 문화적 폭력의 배제와 인간다운 삶의 추구로 옮겨놓는 시각은 매우 소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갈통의 저서를 제외하면 국내저술 및 번역서를 포함해 본격적인 평화이론서는 찾기 힘든 형편이다. 우선 《전쟁과 평화의 이해》(황병무, 으뜸), 《20세기의 전쟁과 평화》(이리에 아키라, 이종국 외, 을유문화사)처럼 ‘전쟁’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평화를 논한 책들이 눈에 띈다. 전자는 ‘국방의 위기관리와 군사연구’의 일환으로 평화의 개념에 대한 현실주의, 평화주의학파의 관점을 비교해가며

정리·분석하고 있다. 후자는 일본인으로서 미국 역사학회 회장을 지낸 지은이가 20세기를 전쟁의 시기로 정의하며 최근 1백년을 전쟁과 평화의 두 축으로 설명한다. 특히 전쟁의 원인을 ‘하위 정치’(low politics)적 요소들의 충돌로 설명하면서, 그런 연성 권력(soft power)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비정부단체들의 임무에 주목하고 있다. 《평화의 씨앗》(술락 시바락사, 변희욱, 정토출판) 또한 NGO 활동가인 지은이가 사회부조리의 원인을 개인과 사회의 탐진치(貪瞋癡)로 명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을 끌어들이고, 그를 통해 각각의 인간들이 각성하기를 촉구하는 책이다.

## 평화론 관련서 의외로 적어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김창수, 책세상)은 평화운동론이다. 기존처럼 딱딱

하거나 관념적이지 않은, 멋지고 신나는 통일, 평화운동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고 있다. “평화는 강요된 질서가 아니라 어울림이다. 남과 북을 어울릴 수 있게 하는 통일운동의 바탕은 곧 한반도에서 특수한 형태의 평화운동이다”는 지은이의 말처럼 통일운동의 한 차원으로 평화운동을 조명하고 있다.

《평화 인권 교육》(강순원, 한울)은 지구촌 전반의 갈등해소를 위한 비폭력적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한국 평화교육의 구조적 성격과 문제를 지적한 책이다. 출간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고려대평화연구소가 펴낸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한길사)는 본격 평화학 개설서로, 현대서양 및 동양의 다양한 평화사상을 소개했다. <핵과 평화의 논리>에서 핵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강대국의 핵 억지이론과 특히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의 논리적인 허점과 현실과의 괴리현상을 조목조목 반박한 이삼성 교수의 논문이 눈길을 끈다.

그 외 《평화와 전쟁》(지오프리 블레이니, 이웅현, 지정), 《불교와 평화》(법륜, 정토출판), 《20세기 한국의 야만 2》(김영수 외, 일빛) 등의 평화관련서가 시중에 나와 있다. —강성민 기자